

생물다양성 정책 및 활동

생물다양성 정책

포스코의 생물다양성 정책은 포스코 윤리규범(Code of Conduct) 실천 지침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 생물다양성 정책 - 윤리규범 실천 지침

5.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

① 환경경영 체계 구축

- 환경경영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성과 및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 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 거래 회사와 환경 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 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거래 회사가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지역 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② 환경 법규 준수 및 환경 영향 개선

-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 오염 방지 최적 기술 적용으로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③ 기후변화 대응

- 화석연·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④ 환경과 생태계 보호

- 천연 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posco.co.kr/biodiversity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해양 생태계 복원

포스코는 철강 슬래그를 활용하여 해양 생태계 복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갯녹음 해역을 복원하는 데 사용하는 '트리톤(Triton)' 제품은 훼손된 해양 생태계의 해조류와 어패류 등 수산 자원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재료인 철강 슬래그는 해양 생태계에 유용한 칼슘과 철 등의 미네랄 함량이 높아 해조류의 성장 및 광합성을 촉진시키고 오염된 퇴적물과 수질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트리톤으로 조성된 바다숲은 슬래그 탄산화 및 해조류 광합성에 의해 CO₂를 고정하는 특성도 지닙니다. 포스코는 해양수산부와 2007년 해양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0년 바다숲 및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맺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포항산업 과학연구원(RIST) 등과 협력하여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수심형 신규 바다숲 모델 개발, 기존조성 바다숲 관리 및 효과 조사 등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해 정부, 민간(어촌계), 학계 등과 함께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트리톤 바다숲 조성

목표

- 철강부산물의 기능적 특성 활용으로 연안해역의 75% 바다숲 조성 및 어업생산량 회복에 기여하여 연안생태계의 건강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

바다숲 조성실적

2010년	여수엑스포 바다숲	2014년	경북 영덕군 바다숲
2011년	경남 통영 및 울진	2015년	동해 대진, 울릉도 등
2012년	강원 삼척, 포항시 구룡포	2016년	포항시 오도2리, 연평도 등
2013년	포항시 구만리	2017년	울진 죽변, 남해 바다숲 등

추진계획

- 1단계: 트리톤 바다숲,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 조성기술 개발(R&D, 대정부 협력)
- 2단계(현재): 전문업체 기술이전에 의한 트리톤 바다숲 상용화 지원 및 사업기반 구축
- 3단계: 경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SPB(Solution based Platform Business)기술로써 사업화 및 대외 협력 확대 추진

* 트리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철강슬래그를 골재로 사용하여 바다숲 복원 능력이 뛰어난 포스코의 저탄소형 인공어초 브랜드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포스코는 제철소 주변 연안의 해양 수질 및 저질토의 오염 수준과 해양 생물 개체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조성된 클린오션봉사단을 통해 산업 활동으로 황폐화 되어가는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9월부터는 우리나라의 청정 해역인 울릉도, 독도에서 급증한 불가사리와 성게의 피해로부터 해조류와 어류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 어촌계 및 환경단체 등과 함께 연합하여 수중 및 주변 지역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내 블로그를 통해 생물다양성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광양제철소 부지 및 인근 지역은 다양한 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개체수가 적어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된 동물 중 포유류 1종(수달), 조류 11종(큰고니, 고니, 큰기러기, 흑기러기, 황조롱이, 새매, 말뚝가리, 물수리, 독수리,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이 광양제철소 부지에서 발견되었으며 해당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달이 주로 출몰하는 지진도 지역은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수달의 서식지임을 알리는 보호 입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철새들이 쉬어가는 월동 시기(12~2월)에는 항타 공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동식 가설 방음 판넬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새들의 분포 및 서식 현황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 정화 활동

생물다양성 도서 발간



2016 발간도서 '철따라 새보기'

2017 발간도서 '새를 기다리는 사람'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국내환경 시민 단체와 함께 멸종 위기 종 생물에대한 도서 발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수리부엉이, 2015년에는 두루미를 선정,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가해 그 동안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소개한 도서를 발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철 따라 새보기 탐조 캠프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직접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시민들에게 생물다양성 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조류를 대상으로 한 탐조 일지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세밀화 기법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읽으며 생물다양성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 환경 시민 단체와 함께 환경 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탐조 활동